

# “전남 서부권에도 공립 특수학교 설립해달라”

### 잇따른 청원...서부권 사립만 5곳, 동부권은 공립만 3곳 전남교육청 “공·사립간 교육·예산 차이 없어...신중 입장”

사립만 있는 전남 서부권에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목포·무안 지역에도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청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들은 '기존 특수학교 정원이 여유롭지 않고, 장애 특성과 수준에 따라 입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서부권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장애영양아의 교육기회 보장과 확대, 특수교육 대상자의 안정적 진로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남 서부권에는 공립 특수학교가 단 1곳도 없다. 목포·함평·영암·강진 등지에 5곳의 사립 특수

학교만 있다. 반면 동부권에는 순천과 여수, 개교를 앞둔 광양 햇살학교를 포함 총 3곳의 공립 특수학교가 있다. 동부권에는 공립만 있을 뿐 사립 특수학교는 없다. 내년 3월1일 개교 예정인 광양 햇살학교는 부지면적 1만4807㎡, 지하1~3층, 총 23학급(유·초·중·고·전공과)의 전남 4번째 공립 특수학교다. 발달장애 학생 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지체 등의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장애통합 특수학교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실과 훈련실을 통합 배치하고 놀이와 치료를 병행,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실을 갖춘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 중부권(나주 1곳·공립)

등 전남에는 총 9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이 중 4곳이 공립이다. 이러한 청원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여건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는 공립보다 사립의 출발점이 더 빠르다. 서부권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가 먼저 자리했다"며 "공·사립 간 교육적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서부권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현재의 사립 특수학교는 경영이 어려워진다. 사립 특수학교를 도태시킬 수 없지 않느냐"며 "사립 특수학교의 정원을 넘어선 수요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미래건축가 창작물 한눈에...조선대 건축학과 온라인 졸업전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가 최근 미래 건축가들의 건축 아이디어를 담은 제62회 졸업전시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이번 전시회에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건축 대안들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전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건축학과 공식 유튜브 채널(<https://youtu.be/jgMy7hxXewE>)을 통해 12월까지 관람할 수 있다. <조선대 제공>

## 광주여대, 내년 신입생 전액 장학금 확대

### 교육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 선정도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202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전액 면제를 위해 전액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소득 구간 8구간 학생들까지 교내장학금을 확대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8구간 이내인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급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소득 구간 9분위 이상 수험생에게도 최초합격자 70만원, 총원 합격자 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확대 지급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및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해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생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에 선정됐다. 전국 대학 중 2개교를 선정하는 이번 사업에서 지방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돼 명실상부한 마음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사업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국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전문지식과 실천적 역량을 갖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진다. 광주여자대학교는 2015년부터 교양필수 과목으로 마음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마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마음교육 실시 등 마음교육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광주여대는 MAUM교육 선도대학으로서 배움과 나눔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7개 여자대학 중 취업률 1위 대학으로서 학생중심의 교육과 실무 위주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여성인재가 등록금 걱정없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입학부터 취업까지’

### 광주대, 맞춤형 ‘VIPS’ 운영



대학일자리센터 선배 특강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광주대에 따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운영하는 2021학년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VIPS)을 통해 취업·진로지도에 의뢰한 학생 286명 가운데 3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 졸업자까지 포함하면 취업대상자 1,426명 중 630명이 사회에 진출했다. 광주대 'VIPS'는 공통역량과 진로설계(V), 자기개발(I), 실무능력(P), 취업지원(S) 등 5단계로 로드맵을 구축해 입학 때부터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이다. 특히 취업 전담 교수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광주대 유아교육과가 최근 '제33회 춘천인형극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아교육과 소모임 동심 인형극회는 춘천인형극장에서 열린 춘천 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서 '편식하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먹자'는 메시지를 담은 창작품 '맛나 왕국 대소동'으로 최우수상인 춘천 시상상을 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호남대 국제교류처, 유학생 한국어 단기연수 진행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에 대비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한국 유학생활동을 돕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25일까지 운영한다. 국제교류처가 진행하는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외 한국어 강의를 집중 교육해 TOPIK(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어 학습 지도 관리 시스템이다. 매일 2시간씩 주 5회 답답제로 원어민 강사 및 한

국인 강사가 함께 교육하며 읽기, 듣기, 쓰기 각 영역별 시험 유형 분석부터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총 208명(학부 114명, 대학원 94명)의 학생을 총 9개 반(오후 1개반, 야간 8개반)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손완이 국제교류처장은 "올해 1학기부터 실시한 이 프로그램에서 TOPIK 3급 이상 합격률은 27.1%에 달했다. 최고의 강사진이 더욱 분발해 2학기에는 더 높은 합격률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 광주·전남·경남·충북 공동 성과포럼 개최

광주·전남과 경남, 충북지역에서 혁신 주제로 활동 중인 각각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이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 확산시키기 위한 성과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 3개 혁신플랫폼으로 구성된 총괄운영센터협의회는 13일 '제1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성과포럼'을 온라인에서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대학-혁신기관-기업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대학의 혁신, 지역의 혁신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대학과 지역의 위기,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라는 기초강연을 통해 혁신의 구심점으로써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학교육혁신 성과발표와 연계해 '공유대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플로키움에서는 남서울대 이석열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광주전남 플랫폼 차성현 본부장(전남대 교수) 등 각 플랫폼의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이어졌다. 전남대학교가 총괄하는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은 지난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기업-연구기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3000여명의 지역맞춤형 인력을 양성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